### 종단 확고한 의지 반영…직할교구 심의위 개최

# 종단 최초 주지 인사평가 실시

종단에서는 처음으로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스님, 총무원장)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회 인사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2544년도(2010년)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직할교구의 공찰 4곳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대상 사찰은 서울 노원구 학도암(주지 법보스님), 서울 성북구 청룡암(주지 부경스님), 서울 성북구 경국사(주지 정산스님), 성남 봉국사(주지 지철스님)다.

## "효율적 인사로 신뢰·공정성 확립 수도권포교 활성화의 첫걸음 시작"

▲ 인사 평가 항목
(항목당 200점 만점)
종무행정, 포교·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

▲ 평가 점수 구분
갑(950점 이상, 우선임명)
을(800점~949점, 재임가능)
병(600점~799점, 재임불가)
정(400점~599점, 재임불가)
무(399점 이하, 재임불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종무행정, 포교·복지, 재정, 불사 등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인사평가가 실시됐다. 심의위원은 교구장(총무원장), 총무국장(영담스님), 재무국장(상운스님), 포교국장(계성스님) 등 직할교구 소임자와 도진(직지사 중암)·수불스님(안국선원장) 등 총무원장 추천 인사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직할교구장인 총무원장 스님이 각 사찰의 주지 임명 시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재안스님은 "이번 인사평가는 효율적인 주지인사를 통한 종도들의 신뢰 및 공정성 확립과 포교 및 복지를 통한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직할교구는 올초부터 인사평가제(주지인사고과제) 시행을 본격 추진해왔다. 지난 1월 인사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2월에는 인사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3월에는 인사평가 시행안을 마련하고, 직할교구종회를 통해 홍보작업을 실시하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4월에는 공찰을 대상으로 모의인사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본·말사 주지인사 규정을 개정했다. 이달에는 개정된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을 공포했다.

직할교구의 인사평가제 도입은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종단 차원의 고민에서 비롯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9일 직할교구종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 가운데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종단은 그동안 수도권 포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서 △직할교구 인사고과제 시행 △포교와 복지중심으로 사찰운영 전환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효율적인 주지인사로 종도들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실무 부서장인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도 인사고과제를 통해 종도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열린 직할교구의 제1회 인사평가 심의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인사평가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되는 종책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가 직할교구의 당연직 소임이라는 점에서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직할교구의 인사평가는 주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직할교구는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직할교구 내의 공찰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개인사찰은 추후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직할교구는 법회 실시 여부, 참석인원, 주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회현황 보고 제도'를 공찰을 대상으로 실시해 객관적인 기초 인사자료를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직할교구 사무국장 재안스님은 "종도들에게 신뢰받은 인사고과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직할교구는 개정된 본·말사 인사규정 18조에 의거, 종단 미입주 사찰에 대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을 차기 주지로 내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입주 사찰 회복에 대해 종단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상 사찰은 서울 강남 불국사, 고양 원효암, 김포 문수사, 인천 용궁사, 서울 관악 자운사, 철원 안양사 등 6개 사찰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사과했다.

## "부덕의 소치로 심려 끼쳐 죄송"

### 안상수 대표,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사과'
### 임태희 대통령실장·홍상표 수석 신임 인사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봉은사 직영 외압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안상수 대표는 "지난번에 부덕의 소치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안상수 대표는 "(한나라당) 종교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통사찰보존법이나 템플스테이 등에 저희들이 심부름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태희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당 대표 선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종단에 누를 끼쳤다는 (사과는) 잘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발전을 위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불교뿐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상수 대표의 사과방문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총무원 사서실장 경우스님, 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한편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과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도 취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했다.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정신과 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에서도 소통을 해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며 "무엇보다 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사회통합을 이뤄달라"고 화답했다.

이성수 · 장영섭 · 엄태규 기자

## "교육·포교는 백년대계 위한 종책"

### 총무원장 스님, 하반기 종단운영방침 표명
### '수익사업 확대' '책임 있는 종무행정'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 하반기 종단 운영방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소속 종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연조회에서 하반기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밝힌 하반기 운영방침은 △(승가)교육 △포교 △수익사업 확대 △책임 있는 종무행정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제33대 집행부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교육과 포교"라면서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실현해야 할 종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3대 집행부는 교육과 포교에 대한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포교와 함께 주안점을 둔 것은 '수익사업 확대'다. 총무원장 스님은 "사찰재정을 투명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원만큼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종단차원의) 수익사업을 점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창출된 재원은 종단 목적불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책임 있는 종무행정'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부·실장 및 국·차장을 비롯한 모든 종무원이 맡은 임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면서 "신중하면서도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종무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9개월간 총무원장 소임을 보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앞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교육원과 포교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후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에 대해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신문사가 금년부터 제 살을 깎는 아픔과 노력을 통해 거듭나고 있다"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불교신문사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뜻한바 대로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무원들이 노력해 결과물들이 나왔다"면서 "지금같이 흔들리지 않고 (종무행정을) 추진해 간다면 하반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종무원 조회에서는 상반기 종단 사업 평가에 대한 차·팀장 논의 결과에 대해 김영일 기획차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현장에서**

## 불서 읽기, 불자가 앞장서야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세계에서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부끄러운 성적표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러하고 1인당 독서량도 포함된다. OECD가 지난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명이 매월 독서하는 책은 0.9권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였다.

이런 수치가 말해주듯 최근 출판계는 울상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 탓이다. 불교서적 또한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일반 서점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종교서적 분야를 가보면 타종교 책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판량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팔리는 책이 가판대에 더 많이 진열되는 경제논리로 보면, 현재 불서 독서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즈음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사찰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불서를 기증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은 올해까지 모두 5곳의 사찰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했다. 지난 7일에도 남양주 봉영사에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다. 고즈넉한 전통사찰 한 편에 자리 잡은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은 약수터와 어울려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불자들의 환희심도 대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찰이 쉼터를 제공하고 불자와 지역주민은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니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문화부 등의 불서 기증은 불자들의 불서 구입에 따른 수익금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절에도 도서관을 세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불서를 사서 읽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麟角寺
인각사·(사)일연학연구원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2010년 일연·삼국유사 학술논문공모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사상, 종교, 언어 등을 집대성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의식을 일깨워 준 겨레의 성서입니다. 이에 일연학연구원에서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심도 깊게 연구 및 조명하여 선사의 민족자주, 자존정신 및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합니다. 2009년 삼국유사 학술대회를 개최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학술논문공모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모부문 | - 주제1. 삼국유사 및 일연선사의 생애와 사상연구
- 주제2. 중세한국사(고려사) - 고려불교사 포함

접수기간 | 10월 15일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지원서 양식을 제공. 논문접수시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표기 (학위등록번호 필히 기재)

접 수 처 | (사)일연학연구원 ☎ 054)383-1161 www.ingaksa.org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인각사 內 일연학연구원)
이메일 : organdy2040@naver.com

공모자격 | 삼국유사와 일연선사의 사상에 관심있는 석사학위 이상자
- 현재까지 미 발표된 논문이어야 함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공자(박사학위 취득 3년 미만이어야 함)

시상내역 | - 조계종 총무원장상 : 300만원
- 국무총리상 :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200만원
- (사)일연학연구원 이사장 겸 은해사 주지상 : 200만원

기 타 | 당선작은 불교신문 공지 및 개별통지
- 당선 후 이력사항 등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 당선 취소

시 상 식 | -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요일)
- 장소 : 동국대학교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

주 최 : (사)일연학연구원·불교신문 주 관 : 인각사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은해사, 문화체육관광부